



양경자 사태 투쟁 '재점화'

# 새보람

## SAEBORAM



중랑행정기관 편의시설 실태조사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796-4280

www.kappd.or.kr

제216호

2010년 9월

## 공단(양경자) 사태 '끝장투쟁' 돌입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목숨을 버릴지언정  
**“절대 굽히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고용공단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 비대위, '양경자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 기습 실시

13일, 한나라당사 앞... '한나라당 지도부' 약속 이행 촉구

“공정한 사회 위해 양경자 문제 해결해야”... '공개서한문' 전달



9월 13일 오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습적으로 열린 '양경자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서울협회 회원들이 “양경자 사태를 해결하겠다”라고 장애인에게 공언한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에게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3일(월) 오전 8시 30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공단(양경자)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기습적으로 실시했다.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회장 이규달, 이하 서울협회) 회원 100여명이 주축이 된 이번 집회는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공언한 “양경자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조속히 이행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집회의 사회를 맡은 중앙회 강인철 기획조정실장은 “한나라당이 약속한 8월이 지나고 9월 중순에 이른 지금까지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8월 한달 동안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홍보하는 양경자를 지켜보며 끓어오르는 분노와 울분을 가다스르 삼키며 투쟁을 자제해왔지만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속았다는 배신감 뿐이다”고 개탄했다.

이어 “대한민국 480만 장애

인은 양경자를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경고하며 양경자 사태 해결을 위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서울협회 이규달 회장은 최근 장관 딸의 '특혜채용' 문제로 파문을 빚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경우를 예로 들며 “장애인도 '공정한 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밝혔다.

이규달 회장은 “특혜채용이 사실로 밝혀진 후 당사자인 외

교통상부장관 딸의 채용이 취소됨은 물론, 유명한 외교통상부장관까지도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을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의지에 따른 것인데, 유독 장애계에서만큼은 이와 같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회장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 공단 이사장에 오른 양경자는 부끄러움도 모른 채 버젓이 활발하고 있고, 장애인

들은 대통령이 천명한 '공정한 사회'가 자신들에게는 허락될 수 없다는 '비애'로 가득 차 있다”며 “장애인 앞에서 공정한 사회를 논하려면 양경자 사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한나라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한편 집회를 마친 후 서울협회 이규달 회장과 중앙회 강인철 기획조정실장은 양경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원하는 장애인의 목소리가 담긴 비대위의 '공개서한문'을 한나라당 측에 전달했다.





# 비대위, 양경자 사태 투쟁 '재점화'

## 한나라당, 약속 지키지 않아...9월 1일부터 강력한 투쟁 전개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기습 시위 실시...개회식 무산

‘양경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다시 올랐다.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책임지고 8월안에 양경자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약속이 결국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지난 1일(수) 마포대교 남단에서 기습시위를 실시하며, 지난 8월 한달간의 숨고르기를 멈추고 투쟁의 불길을 다시 세웠다.

투쟁의 포문은 마포대교에서의 기습 투쟁이었다. 비대위는 지난 9월 1일(수) 오후 2시 서울

마포대교에서 양경자 공단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기 위한 기습집회를 실시했다.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협회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원 100여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서는 “양경자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함은 물론,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인 양경자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이완범 금천구지

회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공단 이사장 면접심사에서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고사하고 기초적인 배경지식조차 전무한 양 경자에게는 98점의 최고점수를 주고, 다른 후보자들에게는 50점대의 낮은 점수를 주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정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장애대중의 목소리를 듣고 하루속히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무시와 기만으로 장애인을 대한다면 향후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성열영 부회장이 사태해결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나라당 지도부에게 항의의 뜻을 표출하기 위해 한강으로 뛰어내리려다 경찰에 제지당하는 아찔한 장면도 연출됐다.

불의의 저항하기 위한 장애인들의 함성과 분노로 불타올랐던 이날 마포대교의 투쟁은 6일(월) 열린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로 이어졌다.

9월 6일(월) 오후 2시경, 비대위는 ‘제27회 전국장애인기능

경기대회’의 개회식이 열리는 올림픽파크텔(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1층 올림픽아홀에서 기습투쟁을 실시했다.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회장 이규달)와 한국DPI,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의 비대위 소속단체 회원 200여명은 이날 ‘제27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개회식이 열리는 올림픽아홀을 점거한 후 “양경자 이사장의 즉각 사퇴”, “한나라당 지도부의 ‘양경자 이사장 사퇴’ 약속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비대위의 기습 투쟁으로 인해



지난 9월 1일 마포대교에서의 기습 집회에서 이완범 금천구지회장이 ‘한나라당 지도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9월 6일 비대위 소속단체 회원들이 ‘제27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개회식 장소인 올림픽파크텔 올림픽아홀을 점거한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결국 이날 오후 5시에 예정된 개회식을 취소했다.

또한 올림픽파크텔에 들어서던 양경자 공단 이사장은 비대위의 회원들의 야유를 피해 경호원들의 호위 속에 운영본부(2층)로 황급히 이동했고, 두려움을 느낀 듯 얼마 후 올림픽파크텔을 몰래 빠져나갔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5시 30분 경 개회식이 취소되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개회식장(올림픽아홀) 점거를 풀고, 시위를 마무리했다.

이후 비대위는 지난 13일(월) 오전 8시 30분, 여의도 한나라당 사 앞에서 집회를 기습적으로

실시하며 투쟁을 이어나갔다.

〈1면 기사 참조〉

비대위는 이날 집회를 통해 “양경자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약속을 하루속히 이행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고, 집회가 끝난 후 양경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대한민국 480만 장애인의 목소리가 담긴 ‘공개서한문’을 한나라당 측에 전달했다.

한편, 비대위는 9월의 남은 기간동안 강력한 투쟁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오는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에 양경자 사태를 ‘이슈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며 장기적인 투쟁에 대비하고 있다.



이규달 서울협회장과 강인철 기획조정실장이 한나라당 측에 ‘공개서한문’을 전달한 후 관계자에게 양경자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한나라당 지도부에 드리는 공개서한문

국가발전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안상수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는 현재 장애계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양경자) 사태’의 해결을 위해 53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입니다.

‘공단(양경자) 사태’의 해결이 480만 장애인을 위한 어떤 복지정책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라 생각되어 고심 끝에 이렇게 한나라당 지도부 위원님들에게 글을 올립니다.

### “480만 장애인은 양경자를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 6월부터 장애계의 최대 이슈로 부각한 ‘공단(양경자) 사태’는 10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정부의 대립은 물론 장애인간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난 9월 6일(월) 장애인의 축제인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개막식이 장애인의 손으로 무산되는 비극을 낳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아주 간단합니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전문성은 고사하고 장애인복지의 기초적인 배경지식도 없는 양경자씨를 현 정권창출의 공이 있다는 이유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이렇듯 장애인들의 극렬한 저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카피(copy)한 직무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위원들이 던진 질문에 “잘 모르겠다”란 대답으로 일관한 양경자씨가 면접에서 ‘98점’의 최고점을 받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한 다른 후보들은 50점대의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을

도대체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장애인고용을 책임질 능력도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양경자씨를 어떻게 480만 장애인의 고용을 책임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으로 인정하고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480만 장애인은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 한나라당 지도부의 약속을 상기해 주십시오.

공단 사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양경자의 ‘자진사퇴’를 해결방안으로 요구하는 곳은 비단 장애계 뿐만이 아닙니다.

정계, 학계, 언론에 이르기까지 양경자의 임명을 비판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귀당의 존경하는 안상수 대표최고위원과 정두언, 나경원, 홍준표 최고위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들까지 “잘못된 낙하산인사”라고 인정하며 양경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최고위원께서는 장애계의 투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지난 7월 30일 비대위 회장단과 만난자리에서 “양경자 씨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재고(再考)의 여지가 없으며 8월중으로 반드시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약속을 믿은 비대위는 안 대표의 요청에 따라 지난 한달간 한시적으로 투쟁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8월이 지나고 9월 중순에 이른 지금까지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

습니다. 지난 8월 한달 동안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확보하는 양경자를 지켜보며 끓어오르는 분노와 울분을 가까스로 삼키며 투쟁을 자제해왔지만 지금 저희에게 남은 것은 속았다는 배신감 뿐입니다.

안상수 대표님을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께서는 결국 장애인을 우롱한 것입니까?

### 장애인들도 ‘공정한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지난 8.8개각에서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이재훈·신재민 장관 내정자가 낙마했습니다. 특히 특혜채용으로 물의를 빚은 외교통상부의 경우에도 특혜채용 당사자인 장관 딸의 채용이 취소되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까지도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15일 광복절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후반기의 핵심 지표로 천명하신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희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들끓는 민심으로 인해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김태호 총리 내정자와 유명환 장관 등이 내린 ‘고뇌의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을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값진 과정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유독 장애계에서 만큼은 이와 같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희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 공단 이사장에 오른 양경자는 부끄러움도 모른 채 버젓이 확보하고 있고, 장애인들은 대

통령께서 천명하신 ‘공정한 사회’가 자신들에게는 허락될 수 없다는 ‘비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양경자 사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은 장애인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장애인들도 ‘공정한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 한나라당 지도부에게 호소합니다.

양경자 사태를 하루 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양경자씨는 480만 장애인의 일자리를 근심해야 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수장이 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게다가 부정한 방법을 통해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지도부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양경자씨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재고(再考)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살피는 양경자에게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과 같은 ‘의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480만 장애인들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양경자 사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해결의 열쇠는 한나라당이 쥐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한나라당, 이제 국민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라는 한나라당 약속처럼 480만 장애인과 함께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양경자 사태의 해결’을 통해 480만 장애인들의 ‘희망’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장에 당선된 이정선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신의 조선의원인 이정선 의원이 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장’에 당선됐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수) 중앙장애인위원장 및 장애인상임전국위원 선출을 위해 한나라당이 실시한 ‘제5차 전국장애인대회’에서 517표(51.54%)를 얻어 486표(48.45%)를 획득한 윤석용 의원을 제치고 중앙장애인위원장 당선에 영예를 안았다.

지난 7일(화) 출마를 선언한 이정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진정성 없고 무성의한 태도로

# 이정선 의원,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 당선

윤석용 의원 제쳐...지장협 지지, 당선의 원동력

김정록 중앙회장, “45만 지장협 회원 전체의 승리!”

인해 400만명이 넘는 장애인들의 민심이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반감이 심화되기 전에 누군가 나서서 서로의 오해를 풀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정부·여당과 장애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소통하는 장애인 정책’, ‘변화하는 한나라당’의 참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고 싶다”는 출마의 변을 밝힌 바 있다.

장애계는 이 의원의 당선으로 인해 ‘양경자(공단) 사태’를 비롯한 장애계 현안에 대한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가 한나라당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정선 의원의 출마에는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지지를 보냈다. 이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던 당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의원의 공식적인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장애인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나라당 제5기 장애인위원장 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장애인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젊은 피의 수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선 의원은 장애인당사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며, 장애인 인권활동과 인식개선을 위한 등 정부와 청와대와의 소통에 매우 적임자”라며 “우리는 이정선 의원이

장애인위원장으로 당선되면 모든 힘을 보탬 것이며, 한나라당이 복지 국정의 주도권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특히 윤석용 의원에 비해 인지도와 전국적인 조직력이 약한 이 의원의 당선에는 지장협의

‘적극적인 지지’가 당선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골고루 분포해 있는 지장협 대의원들은 지장협의 공식 지지 이후로 이 의원 쪽으로 급격히 돌아섰고, 지장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이 의원이 어려울 것으로 여긴 선거의 결과를 뒤짚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 판단된다.

한편 김정록 중앙회장은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지장협 45만 전체 회원의 승리”라며 기뻐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중앙회장을 비롯해 장애단체장들이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정선 의원의 지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전재희 장관 퇴임 오찬

김정록 중앙회장, ‘감사패’ 전달



김정록 중앙회장을 포함한 장애단체장들이 지난달 20일 마련된 오찬자리에서 퇴임을 앞두고 있던 전재희 전 장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김정록 중앙회장을 비롯한 장애인단체장들이 지난달 20일(금) 퇴임을 앞두고 있던 전재희 전 장관에게 회장단은 지난달 20일(금)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오찬은 비록 ‘LPG 지원제도 폐지’, ‘장애인연금 후퇴’ 등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장애단체와의 대화에 노력한 전재희 전 장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기애애했던 오찬자리에서 전재희 전 장관은 후퇴한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장애단체장들은 전 장관의 무운을 기원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이어 김정록 중앙회장과 장애단체장들은 지난 2년간 복지부를 이끈 전재희 장관의 노고를 격려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 ‘제13회 전국지체장애여성대회’ 개최



‘제13회 전국지체장애여성대회’에 참가한 여성장애인들이 쪽물들이기 체험을 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13회 전국지체장애여성대회’가 지난 9월 1일(수)부터 3일(금)까지 3일간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부형중, 이하 제주협회)의 주최로 제주퍼시픽호텔에서 치러졌다.

올해로 13회째를 맞고 있는 ‘전국지체장애여성대회’는 장애여성 리더십 네트워크 구성과 장애여성지도자를 발굴, 육성하여 참가자들의 지도력 함양과 장애인복지발전을 지향하고자 하는 취지로 매년 제주협회에서 개최되고 있다.

“내안의 또 다른 열정! 감동으로 하나 된 우리”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의 여성장애인활동가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강연과 레크레이션, 토론, 쪽물들이기, 올레길걷기 등의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3일간 진행되었다.

전국지체장애여성대회 성정자 준비위원장은 “여성대회 개최 횟수가 늘어날수록 역량 있는 ‘여성활동가’와 ‘대변자’들이 많아져 여성장애인들의 권익이 신장되는 것을 보며 더 큰 책임을 가지게 된다”며 “다음해에는 이제껏 함께하지 않았던 지역의 여성회원들이 더 많이 참가해 여성장애인이 행복한 ‘새로운 세상’을 위한 노력에 동참했으면 한다”는 소망을 전했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16호 2010년 9월 20일

회 장 · 발행인 / 김정록 편집장 / 이현일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서울라05825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hambaknun30@nate.com

대표전화:(02)796-4280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성명서



## “공단과 노동부는 양경자 사태에 대한 정치적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장애인고용공단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현재 공석상태인 두명의 공단 상임이사 임명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음모’ 대해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지난 8월 20일, 고용노동부 박재완 신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단 고용촉진 이사과 기획관리이사의 사표가 처리됐다. 공단의 상임이사 두명이 모두 같은 날 사직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다. 특히 그들의 사표는 지난 5월에 작성됐고 날짜를 표기하지 않아 언제든지 수리할 수 있는 ‘백지사표’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비대위는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공단은 이와 같은 장애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신임 상임이사의 임명절차를 강행했고, 지난 15일(수) 면접심사까지 실시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용촉진이사직에 지원한 조종란(현 공단 고용지원국장) 후보를 장애인단체들이 인정했다”라는 고용노동부 이채필 차관의 황당한 발언이 터져 나왔다.

우리는 조종란이란 사람을 인정한 적이 없다. 양경자 사태에 대한 끝장투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는 ‘양경자 자진사퇴’ 이외에는 관심도 없고 공단과 노동부와 어떠한 대화나 협상을 할 생각도 없다. 물론, 비대위 소속되어 있지 않은 타 단체가 조종란이란 사람을 지지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 이에 따라 이채필 차관의 발언은 분명히 ‘실

언’이며, 우리는 이를 가벼운 실언이 아닌 ‘정치적 의도가 있는 발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채필 차관은 이러한 비대위의 우려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다.

‘공단(양경자) 사태’는 대한민국 480만 장애인을 고통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한 장애인이 마포대교 위에서 투신하려 했고, 장애인의 축제가 되어야 할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개회식이 장애인의 투쟁으로 무산되는 등 수많은 비극을 낳고 있다.

또한 이 사태의 주인공인 양경자는 확보하고 다니고 고용촉진이사과 기획관리이사는 직장을 잃어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공단 고용노동국장을 이사로 만들어 양경자의 수족

노릇을 시키려 하는 등 공단과 노동부는 ‘정치적인 술수’로만 이 사태를 대하고 있다.

이에 비대위는 공단과 노동부에 양경자 사태에 대한 정치적 음모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실언의 주인공인 이채필 차관의 해명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양경자 사태’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양경자의 ‘자진사퇴’ 뿐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10년 9월 16일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 “추석 귀성길, 걱정 없이 다녀오세요!”

## 경기협회, 중증장애인 ‘추석 귀성길’ 지원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표창대, 이하 경기협회)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22일)을 맞아 중증장애인들이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기 위한 ‘귀성길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실시한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와 시흥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함께 실시하는 ‘귀성길 지원사업’은 장애와 생활고 때문에 추석에도 먼 길을 가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경기협회는 최근 2년간 고향을 방문한 적이 없고 세대에 차량이 없는 장애인 20명을, 시흥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경기도내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 장애인 8명의 귀성길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정에는 고향 방문에 필요한 선물도 제공한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귀성길 지원은 그동안 생활형편과 장애 탓에 고향을 찾을 수 없었던 중증장애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지난 2009년 실시된 ‘추석 귀성길 지원사업’에서 중증 장애인 등이 귀성 차량 앞에서 손을 흔들며 기뻐하고 있다.

것”이라며 “반응이 좋으면 지원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제7회 서울시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

##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회장 이규달, 이하 서울협회)는 지난 13일(월) 오전 9시 독섬 한강공원 내 게이트볼 경기장(광진구 자양동 소재)에서 「제7회 서울시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했다.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실시된 이번 대회에서 서울지역 25개 참가팀은 리그전을 통해 지난 1년간 갈고닦은 게이트볼 실력을 맘껏 발휘했다.

대회의 우승은 영등포구가 차지했고 준우승은 은평구에게 돌아갔다. 이밖에 동대문구와 금천구가 대회 3위와 장려상을 각각 차지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대한장애인게이트볼협회 서울지부 발대식」도 함께 열렸다.



지난 13일 열린 ‘제7회 서울시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 경기 모습

서울협회 이규달 회장은 “게이트볼은 관절과 근육에 큰 부담을 주지 않아, 장애인을 비롯해 남·여·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상황변화에 따른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훌륭한 장애인 생활스포츠”라며 “오늘의 발대식을 통해 게이트볼대회를 활성화해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실현을 실현하자”고 독려했다.



## 롯데백화점에 ‘친 환경매장’ 오픈



청량리 롯데백화점 4층에 오픈한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지회의 ‘친 환경매장’ 모습.

## 서울협회 동대문지회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지회(지회장 장금영)는 지난 8월 20일(금)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4층에 ‘친 환경매장’을 오픈했다.

매장에서는 친환경세제, 친환경수세미, 친환경표백제, 각종 마사지용품, 생활필수품 등 100여 가지가 넘는 친환경제품을 판매한다. 또한 구매자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주어 다양한 부가혜택을 제공하는 ‘포인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량 구입도 가능하며 배달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동대문구 내의 저소득 장애인 3명을 고용하여 장애인 고용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장애인

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여 ‘판로개척’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금영 동대문구지회장은 “저소득장애인을 비롯해 일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친환경매장의 판매사원으로 일하게 되는 장애 4급의 최희정(여, 42세)씨는 “일을 하고 싶어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받아주는 곳도 없었고, 받아주는 곳이 있다 해도 장애 때문에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얻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이런 일자리가 많이 생겨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했다.

## 김천신협봉사단과 ‘자매결연’ 체결



지난달 25일 열린 ‘자매결연 협약식’에서 김천신협봉사단과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측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선하, 이하 김천복지관)과 김천신협봉사단(회장 장영호)이 김천시내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지난달 25일(수), 복지관 3층 강당에서 열린 ‘자매결연 협약식’에서 김천신협봉

사단은 앞으로 지역장애인을 위한 ‘월1회 무료급식’과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복지기금 마련’에 협력하는 등 김천복지관과 교류를 활발히 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두 기관은 협약식이 끝난 후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150여명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 “사랑의 쌀을 나누어 드립니다”

## 대전협회, ‘어울림 쌀 나누기’ 행사 실시

##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윤석연, 이하 대전협회)는 지난달 8월 17일(화) ‘어울림 쌀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대전협회는 이날 총 1810kg의 쌀을 대전시 5개구에 있는 150명의 중증장애인기초수급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줬다.

이날 중증장애인들에게 제공된 쌀은 지난 7월 9일 취임한 윤석연 대전협회 신임 회장의 취임식에서 화환, 화분 등을 대신해 받은 것이다.

윤석연 회장은 “오늘의 ‘어울



‘사랑의 쌀’을 나누어 주고 있는 윤석연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장.

림 쌀 나누기’ 행사가 작은 사랑의 실천인 ‘후원’을 활성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 ‘제5회 세바퀴 사랑나눔’ 개최



지난 11일 열린 ‘제5회 세바퀴 사랑나눔’ 행사에서 삼성카드 자원봉사자들과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의철, 이하 북부장복)이 주최하고 삼성카드(주)가 후원하는 장애인식캠페인 ‘세바퀴사랑나눔’ 행사가 지난 11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강북웰빙스포츠헤브에서 개최됐다.

지난 2005년 시작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장애인,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체육대회, 장애청소년의 비올라 연주 및 각종 축하공연, 400여명이 함께 참여하는 프리허그, 장애인 운영 카페 및 쿠키 등 장애인 특화사업 소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에티켓 엽서 나눔 이벤트 등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를 후원한 삼성카드(주)는 “장애인 사랑, 실천하겠습니다!”라는 구호 아래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와 나눔의 실천을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삼성카드는 서명에 참여한 인원만큼 후원금을 적립하여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배터리 교체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가족 간의 갈등을 즐거운 공연을 통해 해소하기 위한 ‘2010년 가족교육-마술공연’을 실시했다.

지역주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공연에서는 유명 마술사(매직넥스트엔터테이먼트 소속)들의 로프마술, 카드마술, 눈꽃마술쇼 등이 열렸고, 공연을 관람한 영천시 내 장애인 및 가족 40여명은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마술을 함께 감상하며 가족들과 정서적으로 친밀해 질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 ‘2010년 가족교육-마술공연’ 실시



‘2010년 가족교육-마술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과 마술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

장 이제근, 이하 영천복지관)은 지난달 30일(월)에 장애로 오는 일상생활 속의 스트레스를 해소

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즐거운 공연을 통해 해소하기 위한 ‘2010년 가족교육-마술공연’을 실시했다.

지역주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공연에서는 유명 마술사(매직넥스트엔터테이먼트 소속)들의 로프마술, 카드마술, 눈꽃마술쇼 등이 열렸고, 공연을 관람한 영천시 내 장애인 및 가족 40여명은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마술을 함께 감상하며 가족들과 정서적으로 친밀해 질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 “공공기관 및 대기업, 장애인 고용보다 벌금 선호”

## 공공기관 및 대기업 부담금, 전체 90% 차지…부담금 1위는 ‘삼성전자’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할 정부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선 한나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3일(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07~2010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정부 공공기관과 100대 기업을 비롯한 대기업(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최근 4년간 전체 부담금액 5817억원의 90.4%(52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담금액 중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대기업의 납부액 비중은 2007년 94.2%에서 2008년 85.2%로 다소 낮아졌지만 2009년 85.3%, 2010년 86.1%로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지난해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1% 미만인 공공기관과 장애인

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민간기업 명단을 공표했다. 그러나 올해 정부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액은 1266억원으로 전년 대비 0.6% 줄어드는데 그쳐 명단 공표가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정부 공공기관과 기업이 실제 장애인을 고용해 발생하는 비용보다 부담금을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행보다 부담금액을 상향시키고,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명단 공표 대상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고용부담금액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곳은 삼성전자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의무고용 인원인 1707명 중 단지 585명만을 고용해 가장 많은 68억7000여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는 엘지디스플레이(23억8000여만원), LG전자(16억6000여만원), 하이닉스반도체(15억8000여만원), 신한은행(13억6000여만원) 순이

었다.

100위 현황을 그룹별로 보면 삼성그룹이 매년 계열사 11개 이상 포진하고 있어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삼성 계열사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매년 100억원 이상으로 금액면에서도 다른 그룹들을 제치고 있다. 다른 대기업은 LG그룹이 계열사 6곳, 부담금 약 54억원으로 2위, SK그룹이 계열사 6곳, 부담금 약 19억원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상위 100개 업체 중 금융권이 매년 약 20개 이상으로 장애인고용과 거리가 먼 업종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국내 3대 은행은 매년 10위권 안에 포진해 있어 은행권의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의 높은 벽을 실감하게 했다.

그러나 최근 사무지원 및 전화상담 분야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분야로 여겨지고 있어, 은행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이



‘2007~2010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공개하며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장애인 채용 기피를 비판한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이정선 의원은 “그동안 주요 대기업들이 매년 수십억 원의 장애인 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회피해

왔다”며 “부담금만으로는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제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사회적 책임’과 ‘의무’로 인식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진수희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 “친서민 전담장관 될 것”…장애연금 증액 기대



진수희 보건복지부 신임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신임 장관이 지난달 30일(월)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보건복지가족부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취임사에서 진 장관은 “친서민 전담장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 장관은 이를 위해 “장관 직속으로 ‘친서민 정책추진본부(가칭)’를 만들어 보건복지부가 친서민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와 민간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눔문화를 확산시켜 계층갈등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친서민 정책을 펼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진 장관은 또한 진 장관은 서민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개선’할 것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진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의 일자리를 늘려서

국민 여러분이 더 많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인력을 활용하고 관련 법규와 제도를 개선해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 장관은 취임 전 청문회에서 “장애인연금이 충분한 수준에서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라는 소신을 밝혀 장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야당 의원 시절인 지난 2004년 12월, 지금의 장애인연금제도와 비교해 연금액이 3배가 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강력히 찬성한 바 있어, 장애인들은 진 장관의 취임 이후 장애인연금이 ‘증액’되는 것은 물론 대상자 또한 ‘확대’되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 장향숙 전 의원, ‘인권위상임위원’으로 추천 의총 추인 및 국회 본회의 통과 남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에 추천된 장향숙 전 국회의원.

장향숙 전 국회의원(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이 오는 20일(월) 임기가 만료되는 최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임으로 추천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위원회’ 명의로 모집공고를 낸지 1주일 후인 6일 오전 추천위원회 심사회의를 열고, 비장애인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복수 추천대상자 중 만장일치로 장향숙 전 의원을 최종 낙점했다고 7일(화)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민주당 의총추인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박은수 의원은 “장애계가 장향숙 전 의원을 추천하자는 데 큰 틀에서 합의를 했고, 그러한 합의를 당 지도부와 추천위에서 전격 수용함으로써 장애계의 요청에 ‘화답’한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에이블뉴스〉



# 활동보조 끊긴 장애인들, ‘긴급구제’ 요청

## 전장연, 3명 대리인 자격으로 인권위 신청 모두 ‘장애등급재심사’ 결과 2급으로 하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난 9일(목)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에 “장애등급 하락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장애인을 구제해 달라”며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날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김정화(46)·이상국(29세)·김선준(가명·57)씨 등 3명이다. 이들은 모두 장애1급이었지만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고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은 결과 2급으로 ‘하향 조정’돼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이 중단됐다.

피해사례 고발에 나선 여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대희

소장은 “두 다리는 아예 못쓰고 척추도 S자로 휘어 앉아있는 것조차 힘든 김정화씨는 발가락 하나가 움직인다는 이유로 2급으로 하락했고,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겨 직장도 못나가고 85세 노모에게 의지하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김씨 등의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장연 남병준 정책국장은 “인권위는 긴급하게 구제해야 할 부분에 대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인권위 조차도 이 문제를 넘어간다

면, 인권위는 인권을 논할 자격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장연은 긴급구제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활동보조서비스 신규신청을 금지하고 장애등급을 재심사해 등급이 하락되면 활동보조서비스를 중단시키는 등 장애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정치로 장애인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 7일(수)부터 종로 보신각 앞에서 ‘장애인 활동보조 살리기 무기한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있으며, 8일(수) 오전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장애인 활동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9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등급 하락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장애인을 구제해 달라”며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사진-전장연 소속 회원들이 신청에 앞서 비를 맞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조 피해접수 대책본부 발대식’을 갖고, 활동보조서비스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선포한 바 있다.

전장연은 “이명박 정부의 가짜 복지 실체를 폭로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해 전면 투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100

여명의 장애인 당사자들은 활동보조서비스 피해사례 진정서를 직접 복지부에 제출하려 했으나 경찰과의 마찰로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에는 활동보조서비스 피해사례 진정서에는 장애등급재심사로 장애등급이 하락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출처-에이블뉴스)

## “장애 이유로 사무실 임대거부는 차별” 인권위, 재발방지 권고… ‘장차법 16조’ 첫 사례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를 이유로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지난 9일(목) 장애를 이유로 사무실 임대를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정모씨(남, 39세)는 “사무실 임대를 알아보던 중 ‘장애인들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자 A부동산임대업체에서 임대를 거절했다”며 지난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업체 측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임대 특성상 장애인들이 입주하면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과 이용 거부

등으로 기업의 최종 목적인 영리추구가 어려워 폐업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사무실 임대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

시해야 하는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적시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또는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하며 “A업체측의 주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편견에서 비롯된 고정관념일 뿐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라 볼 수 없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6조를 위반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A업체 대표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함은 물론 지도·감독 기관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A업체를 포함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 지상파, 장애인방송 제작비 매년 감소

### KBS·SBS, ‘09년 제작비 전년대비 20% 감소

지상파 방송3사 장애인방송 제작비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한나라당)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3년간 방송사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방송 제작비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3사의 장애인방송 제작비가 2007년 17억4500만원, 2008년 15억9800만원, 2007년 13억35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KBS는 2008년 8억1000만원,

2009년 6억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20.6%, MBC는 2008년 3억9900만원에서 2009년 3억8900만원으로 약 2.5%, SBS는 2008년 3억8900만원에서 2009년 3억3백만원으로 약 22.1% 감소했다.

이에 안형환 의원은 “지상파 3사의 장애인방송 제작비 감소 추세는 장애인 방송 서비스의 질적, 양적 저하와 함께 사회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지상파 방송사들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및 관심과 질적으로 수준 높은 장애인 방송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 및 관계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사업자	2007년 지원금액	2008년 지원금액	2009년 지원금액	지원금액합계 (‘07-’09)	2010년 지원금액
KBS (kbs1,kbs2)	871	810	643	2,324	475
MBC	408	399	389	1,196	249
SBS	466	389	303	1,158	297
EBS	494	602	809	1,905	580
지역방송	93	139	324	556	345
PP	198	54	336	588	113
SO	-	-	4	4	6
합 계	2,530	2,393	2,808	7,731	2,065

방송사업자별 장애인 방송 제작비 지원현황.



# 내년 최저생계비 ‘143만9천원’ 결정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반영 못해”...재논의 요구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이하 복지부)가 지난달 24일(화) ‘중양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최저생계비를 ‘143만 9413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시민단체는 “장애인 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전시행정”이라며 비판하며 재논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위해 20여개 사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생활보장심의회(이하 민생보위)’는 이날(24일) “가난한 이들의 외침을 외면한 채 또 다시 일방적으로 비현실적

인 최저생계비 결정을 내린 복지부와 중양생활보장위원회에 분노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생보위는 먼저 “최저생계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혁신적인 인상안이 제기돼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물가인상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인상한 것을 두고 대폭인상안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대상이 중소도시 전세아파트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더 필요한 장애인가구, 노인가구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

는 수급당사자들이 계속 외쳐온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빈곤선 도입 등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이다”고 지적하며 “이는 수급당사자들이 계속 외쳐온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빈곤선 도입 등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애인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 1인 기준으로 추가비용이 장애종류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지만 현행 최저생계비는 이러한 비용을 충분히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구분	2010년	2011년
1인가구	50만4344원	53만2583원
2인가구	85만8747원	90만6830원
3인가구	110만919원	117만3121원
4인가구	136만3091원	143만9413원

2010년과 2011년 최저생계비 비교

민생보위는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미비점을 인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저생계비의 재논의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0 시니어 & 장애인 엑스포’ 성황리에 폐막



‘2010 시니어 & 장애인 엑스포’ 행사 전경.

국내 최대 종합복지산업 전시회 ‘2010 시니어 & 장애인 엑스포 (Senior & People with Disabilities Expo, 이하 SENDEX 2010)’가 지난달 28일(토) 사흘

간의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국내·외 143개사 참가, 최신 실버복지기기 및 장애인 보조기구 1만 여점이 출품된 이번 전시

회에는 2만여명이 참관해 고령친화산업 및 장애인보조기구산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실감하게 하는 장이었다.

세계전시연맹으로부터 국제전시회로 인증 받은 바 있는 SENDEX 2010은 독일, 일본, 미국 등의 관련 업체가 참가하고, 9개국 250명의 해외바이어가 수출상담을 위하여 방한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2010 국제보조기구 심포지엄, 한국고령친화산업학회 창립총회 및 심포지엄, 대한간호협회 정기세미나 등 19개의 부대행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내외 석학들의 산업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및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 김형식 교수, UN장애인권리위원 당선

김형식 한반도 국제대학원 교수가 지난 1일(수, 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실시된 UN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위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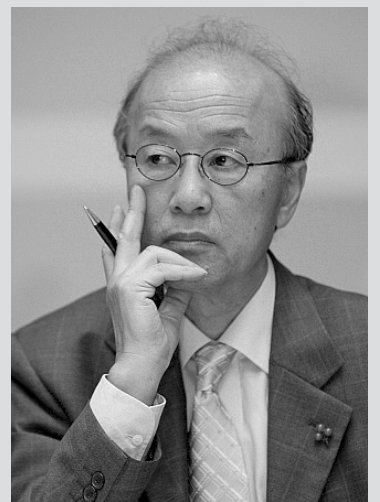
유엔의 대표적 인권협약 감독기구인 ‘장애인권

리위원회’는 18명의 장애인 권리 전문가로 구성되며, 장애인권리협약당사국 보고서 심사, 당사국에 대한 제안 및 권고 등 활동을 통해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로 한국은 2008년 12월 가입했으며 당사국은 90개국이다. 장애인권리위원회에 한국 후보가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형식 교수는 장애인 권리 전문가로서 2002~2005년 세계재활협회 한국지부 회장, 2006~2007년 UN장애인권리협약 성안 회의 한국 NGO 대표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 유엔 관련 국제 인권기구에는 이양희 성공관대 교수가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진성 서울대 교수가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우리나라 인사가 UN 인권협약 감독기구에 진출하는 것은 지난 4월 신혜수 이화여대 겸임교수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 당선에 이어 올해에만 두 번째로, 이들 위원의 활약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국제 인권분야 기여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UN장애인권리위원으로 선출된 김형식 교수

## 조달청, ‘중소기업·사회적기업’ 입찰우대 ‘장애인기업 소액추천제’ 도입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중소·지역기업의 조달참여 확대’ 등 경제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1일(수)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 물품을 2천만원 미만 구매할 경우 장애인기업도 ‘수의계약 상대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기업 소액추천제’를 도입했다.

사회적기업(1점), 가족친화인증기업(0.25~1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우수기업(0.5점)에는 적격심사때 신인도 가점을 줘 낙찰기회를 확대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방법을 중소기업에 유리하도록 신규 고용을 평가로 단순화해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단원의 막 내려

## 경기도 5연패... '대회 MVP' 는 수영의 김지은 선수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6일(월)부터 대전광역시 일원에서「제3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닷새 동안 열띤 경쟁을 펼친 전국 6,750여명의 선수들은 지난 10일(금)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폐회식을 갖고 내년 개최지 경남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대회의 종합우승은 '경기도'가 차지했다. 경기도는 209,361점(금136 은112 동109)의 점수를 획득하며 시·도 종합순위에서는 '5년 연속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특별시도 185,434점으로 그 뒤를 이었고, 개최지 대전광역시도 막판 선전으로 158,660점을 기록하여 인천을 간발의 차로 앞서며 3위를 차지했다.

### ※지난 대회 순위

1위 경기, 2위 서울, 3위 충북

이밖에 모범선수단상은 전라남도, 전년에 비해 가장 많은 순위 향상을 이룬 선수단에게 수여하는 성취상은 대전광역시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외에

도 광주광역시도 입장상을, 강원도가 격려상을 수상했다.

한편 기자단이 뽑은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상(MVP)은 수영종목에 참가한 김지은 선수에게 돌아갔다. '얼짱 수영 선수'로 유명한 김 선수는 수영종목의 5개 부문에 참가해 모두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회 5관왕에 올라 MVP의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 신인선수상에는 육상 남자단거리에서 2관왕을 차지한 오태일(서울)이, 지도자상에는 대구 육상팀의 김우근 감독과 경남 사격팀의 이진화 감독이 각각 선정됐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다관왕'을 차지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됐다. 개회식 성화봉송의 최종주자로 나섰던 양궁의 이홍구(대전)가 6관왕을 차지하며 최다관왕에 올랐고, MVP를 수상한 김지은(부산)을 비롯하여, 육상의 임학수(강원), 양궁의 김지현(광주), 수영의 조원상(경기)과 조민경(부산), 사이클의 고병욱(서울)이 각각 5관왕에 올랐다. 이밖에 여자 양궁의 이화숙(경기)을

비롯한 16명의 4관왕이 탄생했다.

또한 지난 3월 열렸던 밴쿠버장애인 동계올림픽에서 출전했던 선수들의 활약도 눈에 띄었다. 장애인크로스컨트리의 국내 최강자 임학수(강원)는 400m T13을 비롯한 남자 육상 5종목에 출전해 5관왕에 올랐고 휠체어컬링 대표팀 주장 김학성(강원)은 남자육상 투척종목인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포환던지기 등 3개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2개를 획득했다. 같은 컬링대표팀의 '홍일점' 강미숙은 룬볼 단식과 혼성4인종 경기에 출전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도 사격과 양궁에서 '신기록'의 행렬이 이어졌다. 대회 첫날인 6일(월) 열린 사격 남자 공기소총 입사 단체전 R1 SH1에서는 1·2·3위를 차지한 경기·충남·경남이 나란히 종전의 세계기록(중국 1754점)을 갱신하며 '3개의 세계신기록'을 세우는 기염을 토했고, 대회 이튿날 열린 혼성 공기소총 복사 개인전(R5 SH2)에 참가한 이지석(경기)은 706.8을 쏘아 리스틱프라겐(세르비아)이 보유하고 있



대회 MVP를 차지한 수영의 김지은 선수.

던 종전기록을 0.2점 갱신하는 비공인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양궁에서는 여자 리커브 50M 개인 ARST에 출전한 이화숙(경기)이 324점을 기록하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종전기록(320점)을 4점 갱신했다.

이외에도 양궁 남자 리커브 70M 개인 ARW2의 이홍구(대전)와 사격 혼성 공기소총 복사 단체전(R3 SH1)의 충북팀이 세계타이기록을 세우는 등 총 5개의 세계신기록과 2개의 세계타이기록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 시각장애인 이용술씨, 한반도 횡단 마라톤 완주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한 마라토너가 '2010 한반도 횡단 308km 울트라 마라톤대회'를 당당히 완주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시각장애 1급 이용술(남, 48)씨로, 그는 한반도 서쪽의 인천 강화군 창후리 선착장에서 동쪽의 강원 강릉시 경포 해변까지 308km를 64시간 이내에 달리는 '2010 한반도 횡단 308km 울트라 마라톤대회'를 완주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두 번의 실패 끝에 '3수' 만에 값진 결실을 이룬 이 씨는 지난 9일(목) 인천을 출발한 이씨는 11일(토) 오후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강릉 경포 해변에 도착해 박수와 함께 완주 꽃다발을 받았다.

끝인 지점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린 이 씨는 "소중한 우리 땅을 눈이 아닌 발로 직접 달리면서 느껴보고 싶었는데 그걸 이뤄 정말 기쁘다"며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꿈과 희망의 선물이 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후천성 시각장애인인 이 씨는 풀코스



사진은 11일 오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씨(사진 왼쪽)가 해피레그 회원과 대관령 구간을 내려오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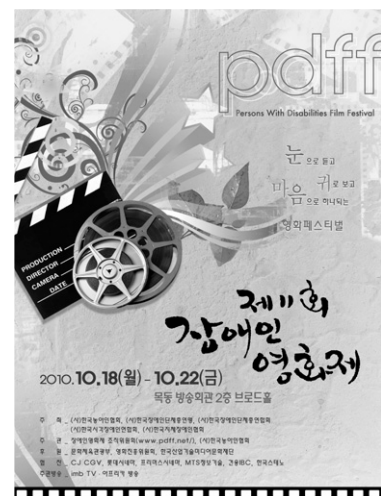
완주 158회를 비롯해 울트라 마라톤 30여회, 고비사막 마라톤 완주 등 일반인을 뛰어넘는 출중한 이력으로 소문이 나 있다.

## '제11회 장애인영화제' 내달 18일 개막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이 주최하는 '제11회 장애인영화제(PDFF)'가 오는 10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5일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다.

"눈으로 듣고, 귀로 보고, 마음으로 하나 되는 영화 페스티벌"이란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장애를 소재로 했거나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제작에 참여한 45편의 독립영화와 차우, 하늘과 바다 등을 포함한 한국영화 5편, 개막작 1편 등 총 51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개막작으로는 작년 제10회 장애인영화제 대상을 수상한 시각장애인 임덕운 감독의 '조금 불편한, 그다지 불행하지 않은 0.24'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임 감독이 직접 제작하고 출연한 영화로 2010년 뉴미디어 국제 페스티벌에서 '최고 구애상'을 수상한



제11회 장애인영화제' 홍보 포스터.

등 다양한 축하공연이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영화제의 관계자는 "장애인영화제는 장애·비장애를 넘어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영화를 즐기는 비영리 영화제로서, 평소 신체적인 장애로 영화를 보기 어려웠던 장애인들에게는 마음껏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들과 함께 영화를 공유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바 있다.

영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다음달 18일 오후 6시 방송회관에서 개최되며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하고 있는 개그맨 박영진 씨의 사회와 함께 가수 BMK, 태사비애, B-boy 댄스팀, 장애인 공연팀



# ‘자랑스런 지체장애인상’ 후보자 추천 및 접수 안내

□ 자랑스런 지체장애인상 제정 취지

사랑과 봉사를 솔선수범하여 실천하는 지체장애인 및 복지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널리 발굴·포상하여 타의 모범이 되게 함은 물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위로·격려하기 위하여 자랑스런 지체장애인상을 제정하여 포상함.

□ 포상대상

자신의 장애를 지혜롭게 극복하여 전문인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한 지체장애인과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원봉사자, 공직자 및 언론인.

□ 후보자 추천인 자격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전국 시·도 협회장
- 전국지방자치단체장 (광역, 기초)
- 각급시민사회단체장

□ 제출서류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현지조사확인서(소정양식)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장애인에 한함)
- 공무원인사기록카드요약서(공무원에 한함)
- 기타 공적에 관한 증빙서류
- ※ 제출서류 서식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홈페이지(www.kappd.or.kr)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는 우편과 이메일(lotte8999@naver.com)로 송부.

□ 후보자 접수

- 접수기간 : 2010년 9월 6일 ~ 9월 30일(당일 소인분 유효)
- 접수방법 : 우편 접수 후 이메일(lotte8999@naver.com) 송부바람.
- 접 수 처 : 우)150-91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1호  
지체장애인대회 담당자(조직지원팀 김태영) 문의(02-2289-4372)
- 시 상 일 : 2010년 11월 11일(예정)

□ 포상내용

- ① 2010년 자랑스런 지체장애인 대상  
-장애인의 위상 정립에 크게 기여하고 장애인의 권익향상에 지대한 공헌한 지체장애인.
- ② 2010년 자랑스런 봉사대상  
- 항상 자신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장애인 인권향상에 이바지한 자.
- ③ 2010 자랑스런 지체장애인 화합상  
-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통합에 특별한 공이 있는 지체장애인 및 공직자, 언론인.
- ④ 2010 자랑스런 지체장애인 자립상  
-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참여를 몸소 실천하여 확실하게자립한 지체장애인.
- ⑤ 2010 자랑스런 지체장애인 지도자상  
- 지회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한 지회장 및 협회(지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지도자.
- ⑥ 2010 자랑스런 지체장애인 모범상  
- 협회(지회) 및 산하 시설에서 근무하며 협회(지회), 시설의 발전 및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한 우수 직원.

□ 포상인원 : 15명(예정)

구 분	인원	시 상	비 고
대상	1	표창 및 상금	국회의장 표창장
봉사대상	1	표창 및 상금	대법원장 표창장
화합상	1	표창 및 상금	장관상
자립상	6	표창 및 상금	장관상
지도자상	3	표창 및 상금	장관상
모범상 (우수직원)	3	표창 및 부상	장관상
계	15		



# 2010 장애인문화예술국민대축제 개막

## 지장협, '학술심포지엄' 및 '스타장애(藝)인 콘테스트' 개최



지난 1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0 장애인문화예술국민대축제 개막식'에서 김정록 중앙회장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개막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마당, '2010 장애인문화예술국민대축제'가 지난 9월 16일(목) 서울시청 열린광장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재종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0 장애인문화예술국민대축제를 국내외 장애인 및 비장애인 그리고 다수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대통합의 축제로 꾸러질 것"이라고 밝혔고,

이정선 공동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축제는 장애인들에게는 문화예술의 혼을 깨워 예술적 감성을 해소하는 장이 되며,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가 다르지 않은 차이일 뿐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영상축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면 우리 사회 어디에도 차이와 차별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더 큰 대한민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함께 가는 사회"라며 "앞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데 노력하고 장

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DPI(장애인연맹)가 주최하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미술협회, 함께하는UD실천연대, 한국장애인서예협회,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 외인부대, 장애인문화예술국민대축제카페(Cafe) 등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2010 장애인문화예술국민대축제'에서는 음악제, 연극제, 학술심포지엄, 전시회, 사진전, 유니버설디자인 등의 다양한 콘텐츠 행사들이 마련되어 '문화난장'을 펼쳤다.

개·폐막식 행사 외에 총 11개의 콘텐츠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미술한·중(韓·中)교류전, 음악제, 연극제, 온몸으로 전하는 회화서예전(공모), 학술심포지엄, 다양한시선 사진전(공모)과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또한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16일과 17일 양일간 풍성한 프로그램이 열렸다. 국내·외 장애인 예술단체 및 비장애인예술단체 팀이 참여하는 '음악제 예끼'를

비롯해 노래, 수화공연, 댄스 등 문화예술 전 분야 아마추어 아티스트들이 함께 하는 '스타장애(藝)인 콘테스트', 청소년만화백일장,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예술관련 단체의 홍보 부스와 캐리커처 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2010 장애인문화예술국민대축제'의 공동주최기관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16일(목), 끼와 열정으로 가득한 장애인들을 위한 '스타장애(藝)인 콘테스트'를 다음날인 17일(금)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난 9월 16일(목)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중회의실에서 열린『2010 장애인문화예술국민대축제-학술심포지엄』은 "3D를 말하다"를 주제로 'Disabilities

& art', 'Drama', 'Design'의 세 가지 테마의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을 '3차원 입체영상'처럼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장애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먼저 'Disabilities&Art' 주제의 토론회(10:30~12:00)에서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예술혼, 창작 활동을 통해 보여준 인간승리와 감동을 소개하고, 장애당사자의 예술활동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좌장은 김종인 나사렛대 교수가 맡고 테너 최승원(교수), 한손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김철수씨와,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wheel)의 송정아 단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 열리는 'Drama' 토론회(13:30~14:30)에서는 고정욱 동화작가를 좌장으로 김현식 문화비평가, 정창권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김상범 제주 DPI 회장이 발제자로 나서 대중문화 속에서 표현된 장애, 그리고 장애인 이

미지 분석과 역사 속 장애인 등을 살펴봄에 대중매체의 중요도를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열린 'Design' 토론회(14:40~16:30)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 서인환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공공문화개발센터 김영현 대표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현성 연구기획팀장,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유재봉 문화협력관이 참여해 법·제도 속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현황을 알아보고, 문화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의 기조강연을 맡은 미국 오하이오주 라이트주립대 음악과 차인홍(남, 52세, 지체1급) 교수의 강연이 화제가 됐다. 차 교수는 생후 1년 만에 찾아온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아홉 살이 되던 1966년 대전에 있는 재활원으로 보내졌지만 그



2010 장애인문화예술국민대축제 개막식 빅콘서트에서 가수 인순이와 나사렛을 비롯한 출연자들이 합창을 하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9월 16일(목)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중회의실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3D를 말하다” 학술 심포지엄에서 토론하고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가들.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이자 교수로 우뚝 선 차인홍 교수의 이날 ‘장애극복기’는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이자 교수로, 대학에서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및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를 돌며 예술강연과 음악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차 교수는 이날 강연을 통해 자신의 장애극복기와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고견을 밝혔다.

차 교수는 “예술에는 한계가 없고 제한도 없기 때문에 장애인 예술가들은 육체·정신적 부족함 등에 관계 없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술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이유로 장애인들은 예술활동을 통해서 그 무한한 가능성에 도달할 수 있고 창조적인 표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오히려 예술성으로 승화되고 또한 고도의 집중력을 통해 더 깊고 아름다운 예술세계가 표현될 것”이라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김기웅 씨가 단소를 연주하며 한국 전통악기의 매력을 자랑하고 있다.

## “끼 있는 장애인은 모두 모여라!” 스타장애(藝)인 콘테스트

9월 17일(목),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에서 주관한 「스타장애(藝)인 콘테스트」가 열린 서울시청광장에 ‘끼’와 ‘열정’으로 가득한 전국의 스타장애인들이 한데 모였다.

본지는 남몰래 감춰두었던 재능을 맘껏 펼친 스타장애인들과 이들의 열정에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던 관객들로 훈훈했던 이날 시청광장의 풍경을 화보로 담아보았다.



이은경 씨가 한국무용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시각장애아동으로 구성된 ‘화이트밴드’. 이날 화이트밴드는 가수 조용필의 곡 ‘여행을 떠나요’를 훌륭히 소화해내며 큰 박수를 받았다.



즐거운 모습으로 출연자들을 응원하고 있는 관객들.



김봉현, 김대호 듀엣조에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김태호 사무총장이 금상을 수여하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박덕경 명예회장과 ‘스타장애(藝)인 콘테스트’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희망새’ 팀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상을 차지한 희망새팀이 앵콜곡 ‘거위의 꿈’을 열창하고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편의시설 실태조사 ②

지난 호에 이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대하여 그 뒷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지난 호와 마찬가지로 중앙행정 기관별로 독특하게 나타난 현상 위주로 서술한다. 중앙행정기관이어서 장애인 등을 배려하는 접근 및 이용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은 기우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편의시설 미설치 또는 부적정설치가 해당 행정기관장 및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의 시설담당자라면 이 정도의 법률에 대한 이해와 준수를 했어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편의 시설을 이용하는 주요 당사자들과 그들을 위해 일하는 단체 내지 기관에서 활동이 미흡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다. 두 견해 모두 다 맞다고 본다. 시설담당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당사자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 내지 기관의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민관의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따라서 더디지만 점점 나아질 것이며 그리고 과거보다는 나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를 독려하기 위해 8월호에 이러 중앙행정기관을 조사를 하면서 보고 느낀 바를 서술하고자 한다.



〈사진 1〉 현재 관리실동  
주출입구 접근로에서 보차도 구분이 되어 있으나 관리가 되지 않아 보행자들이 차도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 2〉 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및 승강설비에 최단거리에 설치되어야 하는 장애인주차구역이지만 주출입구까지와의 거리는 상당히 멀었으며 차량과의 간섭도 많았다.

‘중앙행정기관 편의시설 실태조사’ 넷째날에는 ‘기상청’의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상청은 기상청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독립청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점 때문인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노력이 많이 보였다. 실제로 법적기준에는 맞지 않으나 약간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았지만 사실 주출입구접근로 부분으로 인해 건물에 진입자체가 불편한 실정이었다.

장애인주차구역에서부터의 주출입구(문)까지의 보차도 구분이 되어있지 않아 차량동선과 간섭되어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보도와의 턱마감과 기울기 등으로 인해 건물 주출입구까지 이르는 데는 상당한 인내와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진 1〉과 〈사진 2〉 이는 현재 계획중인 대지경계선입구의 관리실동을 증축할 예정으로 증축시에 토목공사를 통하여 주출입구접근로의 보행통로와 장애인주차구역의 위치변경 및 안전한 보행통로를 확보하겠다는 답변이 있어 그나마 안심할 수 있었다.

〈사진 3〉, 〈사진 4〉은 기상청의 화장실 내부사진이다. 기존화장실에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하



〈사진 3〉 화장실대변기  
현재 설치되어있는 장애인들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의 내부이다. 대변기와 세면대가 같은 공간에 설치되어있고 다른 일반화장실과의 거리는 떨어져있다.



〈사진 4〉 화장실세면대  
일반화장실의 세면대를 이용할 수 없는 동선이라 대변기칸 안에 설치되어있는 세면대

기 어려워 별도로 먼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세면대를 함께 이용하는 남녀공용으로 만들어져 이용에 불편함이 예상되는데 곧 증축 예정인 관리실동에 법적기준에 맞



〈사진 5〉 대지경계선에서부터의 접근로

도록 남·여 각1개소 설치예정에 있다고 한다.

이는 업무를 보는 본관이 아닌 기상청 입구에 설치된 관실동에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본관에서 업무를 하다가 화장실은 기상청 입구에 설치된 관리실까지 와서 볼일을 보고 가야 한다는 것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는 답변을 해 주고 왔다. 또한 기타 화장실에 필요한 설비들도 미비하여 휠체어이용장애인을 비롯한 청각, 시각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여러 편의시설들은 법적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기존건물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많은 노력이 었보였다.

다섯째날에는 인천에서 국제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는 송도에 위치한 해양경찰청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다. 먼저, 담당자를 만나서 조사개요에 대하여 설명하고 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우리는 법적 기준에 맞추어 편의 시설을 다 설치하여 잘못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건축물이 보도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탓에 주출입구 접근로에서부터 만만치 않은 계단이 있어 옆으로 경사로를 두었는데 굴절지점이 상당히 기울기가 급하에 나와 있었으며 수평참도 두지 않았다. 접근로에 설치된 점자블록 역시 화강석재로 된 것이어서 저시력장애인은 이용하기 힘들었다. 내부에도 스테인레스재질로 된 리벳형 점자블록이 필요 없는 곳까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오히려 장애물이 되었다. 화장실에는 안내표시가 보이지 않았으며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출입문은 주름문으로 되어 있었다.

여섯째날에는 ‘농촌진흥청’을 조사하였다. 농촌진흥청의 경우 넓은 대지에 약 19개의 건물이 자리잡고 있는



〈사진 6〉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른 건물로 가는 경사로





〈사진 7〉 장애인주차구역 입식안내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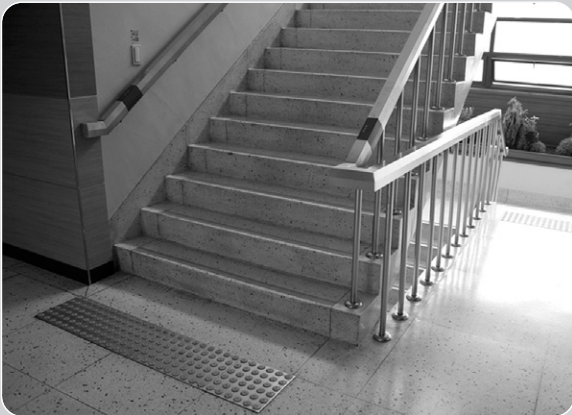
〈사진 8〉 장애인주차구역



〈사진 9〉 주차 후 보행통로



〈사진10〉 주출입구(문) 앞 단차



〈사진11〉 계단(승강기미설치) 손잡이두께 등 세부설치기준에 어긋난 형태, 점형블록 표준형을 사용하지 않았다.



〈사진12〉 출입구(문) 단차, 점형블록의 설치방법 등 법적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었다.

데 그중 실제 조사 보고에 반영될 건물은 본관 건물이지만 연구용역사업의 목적인 장차법의 기준에 맞추도록 대지내에 이용가능성이 큰 용도 6개(본관, 고객지원센터, 강당, 후생관, 전시관, 도서관)를 선정하여 편의시설을 실태점검 하였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농진청의 경우 건물이 많이 노화되어 곧 이전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확실한 일정은 밝히지 않아 현재 설치된 시설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대규모 대지의 특성에 맞게 여러 대지경계선진입로가 있는데 그중 본관과 가장 가까운 주출입구 접근로를 시작으로 조사는 진행되었다.

접근로는〈사진 5〉,〈사진 6〉 실제 조사원이 느끼기에도 장애인등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아 보였다. 경사로의 기울기, 마감상태, 보차도구분 등 법적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편의시설이 많아 보행으로 접근이 어려워 보였는데 차량접근 또한 쉽진 않아보였다.

장애인주차구역의 크기는 일반주차구역의 크기와 비슷했고〈사진 7〉,〈사진 8〉 안전한 보행통로도 확보되지 않았으며 가장 놀라운 사실은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사진9〉,〈사진10〉

접근이 불편하다는 건 내부 편의시설의 설치가 아무

리 법적 기준에 정확히 맞추도록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이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 접근로임을 또 한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내부시설의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는 법적기준에 맞추도록 설치했다기 보단 편의시설을 흉내 내기에 급급한 시설로 판단된다〈사진 11〉,〈사진 12〉. 사실 이러한 설치는 예산이 반영되어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자에게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가장 안 좋은 사례라고 판단된다.

일곱 번째날엔 4개기관을 조사하였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경찰청순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건물에 임대해 있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11월 경에 이전예정이며,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었다.

경찰청은 자체건물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네 곳의 대동소이하게 접근로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접근성표지 등에 있어서 보차도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

기나 바닥 및 입식안내표지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곳은 하나도 없었으며, 다른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공용으로 하거나 남녀 구분되어 설치하였더라도 대변기 측면에 붙여서 세면대를 설치하여 측면이용자의 대변기를 이용할 기회를 뺏고 있는 부분이 대다수였다.

점자블록 역시, 비표준형의 설치가 많았으며, 설치해야 할 곳에 설치되지 않고 설치하지 말아야 할 곳에 설치되는 현상들이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장애인 접근성표지는 또 다시 언급하지만 그 의미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건축물이 있다”라는 것으로 국제표준과 우리나라 표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서는 한국산업표준의 준수라는 제목하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자 및 용역의 조달·생산관리·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이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건물도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시설에 국적 없는 접근성표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 문제를 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혜적, 은혜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8일과 9일째에도 계속 조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 이틀에 조사한 내용은 지면상 생략하기로 하고 이번 중앙행정기관을 조사하면서 느낀 바를 지난 8월호의 내용과 함께 읊어 본다.

지난 8월호에서는 지적된 장애인을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은 첫째, 모든 불편을 인적서비스로 해결한다. 둘째, 공공기관에 있는 장애인은 모두 민원인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셋째,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넷째, 편의시설 설치와 시공에 대하여 감독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유지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들이다.

그와 더불어 반성해야 할 것은 장애인편의시설의 주 이용당사자인 지체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협회와 편의센터의 역할이 지금까지 미미했다라는 것이다. 그 증거로 이번 실태조사를 하면서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상 우리협회 내지 편의센터에서 모두 걸러 내었어야 하는 것들인데도 버젓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에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과 같은 실태조사의 결과물이 조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시정조치를 거쳐서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의한 응당의 조치를 거쳐 그 댓가를 치루는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이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나 지키지 않는 사람이나 사회참여 내지 활동이 동일하게 보장된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할 것인가? 법을 지키는 것은 억제를 한다는 것인데 억제와 위반이 동일하게 처벌되어서는 안된다.

간단하게 결론짓자면, 편의시설을 기준으로 설치하여 그 이용당사자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나아가 사회참여와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말로만 부르짖는 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이 주어져 결과의 평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 장애와 비장애가 구분될 여지를 남기지 않았으면 한다.

## 기사제공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중앙지원센터  
이세나 대리



#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

## 장애인개발원, 오는 30일까지 접수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오는 30일까지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사례'를 공모한다.(지난 2009년 우수사례로 뽑힌 용인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의 쿠키트리.)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용홍, 이하 장애인개발원)이 오는 30일(목)까지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해 타 기관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 주요 장애유형별로 특화사업이 이루어진 사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창의적·열정적으로 수행해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준 사례 등이다.

작품응모는 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www.koddi.or.kr](http://www.koddi.or.kr))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A4 3매 이상 작성한 뒤 이메일([able2010@hanmail.net](mailto:able2010@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장애인개발원은 오는 10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관련 전문가 등 4명 이내의 심사위원단을 구성, 총 8명의 수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오는 10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수상자에게도 개별통보 된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과 상금 30만원, 장려상 5명에게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과 상금 10만원이 주어지며 향후 발행되는 '우수사례 모음집'에 실리게 된다.

<출처-에이블뉴스>

## 시각장애인, 스크린리더로 자격시험 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이하 공단)은 올 9월부터 공인중개사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스크린리더로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지난달 30일(월) 밝혔다.

현재 시각장애인(전맹자)은 점자와 청수법에 의해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청수법은 수험자가 잘 못 알아들은 경우 몇 번이나 반복하여 낭독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 시행될 스크린리더 시험방법은 점자사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수험자가 음성변환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수험자가 음성속도와 크기를 조절해 시험문제를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스크린리더를 사용하는 수험자의 증가추이를 고려해 상설시험장을 설치하는 등 스크린리더에 의한 시험시행 자격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후천성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익히는 것보다 컴퓨터에 의한 정보습득을 선호한다"며 "향후 스크린리더를 사용하는 시각장애 수험자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크린리더(screen reader) : 시각 장애인들에게 화면의 내용과 자신이 입력한 키보드 정보나 마우스 좌표 등을 음성으로 알려 주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 고양시, '장애인 콜택시' 8대 운행 돌입 연중무휴 운행...2011년 22대 추가 증차



고양시 내 장애인들의 발이 되어줄 '장애인 콜택시'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 성)가 지난 1일(수)부터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8대를 운행한다.

한 달 동안의 시험운행을 마친 장애인콜택시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행될 예정이며, 내부에는 휠체어 리프트시설은 물론 카드결제기, 차량용 이동전화기, GPS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

이용대상은 1~2급의 등록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비롯해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렵거나, 혼자서 외출이 어려워 콜택시 이용이 필요한 시민 등이 이용대상이며 이들은 연중 365일 24시간 무휴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운행지역은 고양시 전역과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및 고양시 인접지역(서울시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이다.

이용요금은 고양시 관내에선 거리 제한 없이 2천원이며, 그 외 지역은 시계 외 기준 150원/km이 할증된다.

이용방법은 전화(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1577-5909)로 사전예약하거나 즉시 콜 방식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고양시는 2011년 장애인콜택시 22대를 추가 도입하는 등 연차적 증차 계획을 갖고 있다.

<문의: 전화 031-8075-2911(고양시청 교통행정과)>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출산 지원 사업' 실시

### 출산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원...2011년 5월까지 접수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저소득층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지원하는 '출산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저소득층 여성장애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지원된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상

임대표 장명숙)은 저소득층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 내용은 최대 100만원까지 출산지원금 지원,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제공 및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이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의 170% 해당자나 2010년 7월 1일 이후 아기를 출산한 여성장애인에 한한다.

지원을 원하는 여성장애인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011년 5월 31일까지 우편(등기)접수(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번지 이룸센터 4

층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담당자 앞)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출산지원금 신청서(한국여성장애인연합 홈페이지: [www.kdawu.org](http://www.kdawu.org) 다운로드), 장애등록증명서, 출산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각 1부다. 또한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소득증빙 및 현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747-3675)로 문의 가능하다.

## "장애인에게 책을 배달해드립니다"

### 송파구, 장애인·노약자에 책배달 서비스 실시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몸이 불편해 도서관에 가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에게 원하는 책을 배달하는 '가가호호 책 배달 서비스'를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지난 9일(목) 밝혔다.

송파구는 관내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송파어린이도서관과 거마도서관 등 6개 구립도서관이 소장한 책을 배달하며, 다 읽으면 직접 수거도 해줄 계획이다. 책 배달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뽑힌 20명이 배달 도우미로 활동한다.

대출은 가구당 5권 내외로 2주 동안 가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송파구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손쉽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복지와 실업을 동시에 잡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말했다.



# 인천시, 장애인주차구역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인천시는 오는 11월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인천시는 오는 11월까지 시청과 동·남·부평·계양·서구 등 5개 구청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의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로 지난 5월 선정돼 국비 7억원을 지원받는다.

모니터링시스템은 비장애

인의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관제실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차량을 식별하는 CCTV와 경보음·안내방송 장비로 구성된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전

국 최초로 무인단속시스템이 도입되면 비장애인의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근절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 천안시, 민선 5기 복지정책 청사진 마련 ‘제2기 지역 사회복지 계획’ 확정…4년 동안 추진

충청남도 천안시(시장 성무용)가 민선 5기를 맞아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는 풍요로운 선진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한 사회복지 청사진을 마련했다.

시는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천안”을 비전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복지, 언제나 함께하는 복지, 앞장서 선도하는 복지 천안의 사회복지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게 될 ‘제2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해 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제2기 복지계획은 중앙부처 및 충남도의 복지정책 방

향과 천안시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복지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고 1기 계획의 실행결과를 토대로 지역복지, 장애인복지, 영유아복지 등 11개 분야 185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31개 사업이 신규로 발굴 추진된다.

특징은 최근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복지를 지역복지에서 분리해 한국어 교육은 물론 요리, 문화, 정보화교육을 통한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포괄적 지원이 포함된 것이다.

또한 가족관계 회복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각종 사업이

진행된다.

특히 장애인복지 분야는 1기에 세운 목표를 중심으로 장애인 욕구에 맞는 치료서비스, 서비스 만족도 개선사업 등을 새롭게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향후 4년간 추진하게 될 천안시 사회복지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한 만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체감도 높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부산시, ‘찾아가는 복지관’ 운영 이달부터 특수차량 이용, 서비스 제공



부산시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복지관’ 차량의 외부모습.

부산시가 이달부터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위해 복지 및 문화프로그램, 건강상담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복지관’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복지관’은 복지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기·음향·시청각설비 등을 갖춘 특수차량이 이용된다. 또한 지역복지관, 시니어클럽, 보건소 등과 연계해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찾아가는 복지관’은 부

산테크노파크 내 고령친화산업지원 센터(SPIC=Senior Products Industrial Center)에 위탁 운영하고, 필요인력은 SPIC의 ‘시니어하우스 홍보대사’(노인 일자리사업)를 전담요원으로 활용된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찾아가는 복지관을 통해 기존 복지관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복지 및 문화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 광주시, “장애인복지예산 편성에 장애인 참여”

광주시는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사업 당사자인 장애인이 사업 결정 과정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광주시의 장애인복지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9일(목)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16개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 대표자, 정선수 시 복지건강국장, 시의회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장애인복지예산 편성에 대한 간담회 열고 이와 같이 추진키로 했다.

또한, 2011년 사업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들의 호응도가 높은 주간보호센터 지원사업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지체장애인 민원상담실 운영 지원사업, 농아인협회의 이전 및 기능보강사업 등은 우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예산 편성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선적으로 추진하고, 타 사업들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난 8월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로부터 2011년 추진할 사업 목록과 소요사업비 등을 제출받아 국비지원사업의 지방비 부담률과 시 자체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 등

을 검토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당사자가 참여하는 예산제도는 사업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투명하고 책임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 당사자와 공유하는 것은 참여와 소통을 중시하는 민선5기 시정방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의 : 062)613-3290>

## 제주 장애인보조견 등록 수수료 면제

제주도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 등록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공공시설 출입도 허용한다.

제주도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동물보호조례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에 한해 반려견 등록수수료(인식용 목걸이 1만5천원, 마이크로칩 1만9천원)를 전액 감면한다. 또 장애인이 동반한 장애인 보조견은 박물관이나 쇼핑물, 목욕탕 등 공공시설을 출입할 수 있다.

종전까지는 등록된 동물이 분실 또는 폐사해 변경신고를 할 때 5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으

나 이날부터는 관련 조항이 삭제돼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규등록 및 변경신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이행하지 않거나 동물 출입금지지역에 동물을 동반한 행위 등에 물리는 과태료는 종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렸다.

다만, 인식용 목걸이 비용은 물가인상으로 종전 8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올랐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8년 12월 31일 동물보호조례를, 2009년 5월 11일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모두 5천여마리가 반려견으로 등록됐다.





## 민원상담 Q&A



-기사제공-

중앙회 이춘희 여성정책팀장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질문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장애인당사자분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민원상담실에 질문사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 : ☎02)2289-4320

### “한쪽귀가 없는데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귀’가 없는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왼쪽귀가 그렇게 잘 들리는 것은 아니어서 사람이 말하면 한 번에 알아듣기 힘듭니다. 이런 저도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청각장애는 귀의 기형, 소이증 등은 장애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즉 심한 이명과 두 귀의 청력손실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 한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에 장애등

록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으신 후 장애등록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가 나오면 주소지 주민자치센터에 장애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장애등급 재조정에 대해”

**Q)**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입니다. 지체5급의 판정을 어릴 적 받은 거라 다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장애등급 재조정 신청은 최초 장애등록 후 2년 후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 장애상태보다 현저히 악화

되었거나 호전되었을 때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주민자치센터에 장애등급재조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유산 상속 시 장애인 혜택을 알고 싶어요”

**Q)**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부모님 유산 상속 시 장애인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생전에 상속 받는 것과 혹시 부모님 사망 후에 상속 받는 경우에 혜택에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드리며 최고 5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상속세과세가액=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500만원\*(75-당해 장애인의 연령)]

**A)**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 1년에 500만원

상속세 공제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하시면 되는데 단, 부모님 사망 후 6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부모님 생전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증여이며 사후에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 하는데 상속세

나 증여세나 최고 5억원 까지 밖에 공제가 안됩니다.

참고로 증여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모님 재산을 본인 앞으로 바로 ‘등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에 부모님 재산을 신탁하고 그 재산에 대한 신탁이익을 귀하가 받는 것입니다.

세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1588-0060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고용정보

	업종	업 체 명	근무지	연령	성별	근무내용	급여	보험	연락처	담당자
1	생산직	세진	중랑구 망우3동	30-50세	무관	가방제조생산보조	860,000	4대보험	2289-4321-2	한은희
2	경비직	국제안전시스템	의정부	68세이하	무관	아파트경비	1,020,000	4대보험	2289-4321-2	한은희
3	생산직	(주)씨피엘	안산 단원 화정	20-60세	무관	생산직	860,000	4대보험	2289-4321-2	한은희
4	기술캐드직	(주)아이팩 ENG	도봉구 번동4거리	35세이하	남	기술캐드	면접후	4대보험	2289-4321-2	한은희
5	경비직	(주)티지엠	의정부	67세이하	남	아파트경비	1,100,000	4대보험	2289-4321-2	손가람
6	기술직	포스워드	서울시 강남구	35세이하	무관	스마트폰 수리 및 접수원	연봉 16,000,000	4대보험	2289-4321-2	손가람
7	관리직	나라개발시스템	서울시 서초구	50대이하	남	사업체 및 근로자 관리업무	1,400,000	4대보험	2289-4321-2	손가람
8	사무직	나라개발시스템	서울시 서초구	35세이하	여	경리 및 사무직	1,300,000	4대보험	2289-4321-2	손가람
9	생산직	삼성정밀	서울시 구로구	35세이하	남	쇠가공관련기계조작	1,200,000	4대보험	2289-4321-2	손가람



장애인 맞선 이벤트!!!



2010  
Escape from A Solo

# 솔로탈출 119

일 시 : 2010. 10. 30(토) 11:00~16:00

장 소 : 이룸센터(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 참가대상 :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만남·결혼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참가규모 : 남녀 각 각 20명(총 40명)

◆ 신청기간 : 9월 1일 ~ 10월 26일(2월 간)

◆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viata-dei@nate.com)

우편 및 방문접수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4호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솔로탈출119 담당자 앞

◆ 제출서류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국민건강보험증),

수급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해 재직 또는 수급자 증명서 제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 사진작가 권영식의 '즐거운 디카세상'

### 국내외 대표적인 사진잡지 소개



2010년 8월 6일 난지 캠핑장에서 바라본 저녁 노을 (NIKON D300 f11 1/4.000 -1EV ISO640)

올 해는 냉해피해로 한해 농사를 걱정  
을 하게 하더니 9월이 되어도 30도가 넘  
는 늦더위와 더불어 곤파스와 말로 등의  
태풍피해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것은 물  
론 여러 가지 많은 피해도 생기고 있습니  
다. 추석이 코앞인데 넉넉하고 풍요롭게  
지내야 할 명절이 불안한 일기 덕분에 걱  
정과 한숨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부디  
새보람 독자 여러분들의 가정은 별다른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진을 지도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  
이 뭐냐고 묻는다면 책 구입에 인색하다  
는 것입니다.

사진은 고가의 기기를 가지고 하는 예  
술이기 때문에 기기에 대한 이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공부해야  
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기술  
적인 면에만 무게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  
다.

사진은 기술적 이론 위에 탄생하는 예  
술이기 때문에 감성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론 공부도 게을리하면 안 되는 예술분  
야입니다. 물론 트렌드도 중요한 부분이  
구요.

요즘은 많은 정보들을 쉽게 인터넷에  
서 접할 수 있지만 쉽게 접한 이론은 쉽  
게 잊혀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해보니  
다. 어렵게 구한 책들 들고 행여 구겨지거  
라도 할까 봐 조심 조심 한 장 한 장 넘기  
며 알알이 영어에 있는 주옥 같은 글들과  
원작보다 더 원작 같은 품질의 작품들을  
보면서 감동했던 그 느낌은 인터넷에서  
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일 것 같습니다.

필자가 사진 공부를 할 때는 사진 잡지  
도 몇 개 없었고 수입 또한 원활하지 않

을 때라 귀한 작품집 등은 도서관을 많이  
이용했던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대형 서  
점이 많이 생겨서 한번씩 방문 할 때마다  
풍요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많은 책들을 자주 구입해서 보면 좋겠  
지만 여건이 안 된다면 도서관이나 대형  
서점 등에 자주 가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각 분야별로 잡지들이 많이 발행되고  
있으며 사진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이번 호에는 대표적인 '사진잡지'들을  
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진예술〉



'사진예술'은 필자가 사진을 시작하기  
몇 해전에 생겨난 '사진전문 잡지'입니  
다. 혼자 사진을 하다가 우연히 접한 잡지  
이고 매월 기다리기 힘들어서 중고 책 방  
에 가서 과 월호를 전부 구입해서 몇 번  
씩이나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잡지가 그렇듯이 깊은 내용은 바랄 수  
는 없고 사진계의 동향, 트렌드 또한 잡지  
내의 콘테스트 등이 활발했던 잡지로 기  
억합니다. 1985년 5월 사진계 원로이신  
이명동 선생께서 창간하시고 지금은 동  
아일보 사진기자 출신이신 김병만선생께  
서 사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진계의  
독보적인 잡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잡지 내의 콘테스트가 활발하고  
권위가 있으며 콘테스트 출신들이 동호  
회를 만들어 활발하게 사진계의 한 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월간사진〉



“오래된 만큼 제 값  
어치를 합니다.” 월간  
사진 홈페이지에 있는  
카피입니다. 그다지  
자주 접해보지 못한  
잡지이지만 사진관련  
공간에 가면 어디든 있었던 잡지로 기억  
합니다. 국내외의 사진계 동향을 전반적  
으로 다루고 있는 사진예술과 달리 월간  
예술의 경우 순수 국내작가의 발굴 사진  
계의 이슈, 인터뷰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  
고 있습니다.

#### 〈포토넷〉



필자가 디지털카메  
라를 접한 시점이  
1999년 8월 6일이었  
습니다. 아날로그 시  
대가 저물고 디지털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손바닥만한 디지털카메라를  
15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구입했던 시  
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인터넷이 보편화된  
시절이 아니었으며 정보 조차도 얻기 힘  
든 시절에 필자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관  
점으로 창간한 디지털사진 전문 잡지였  
습니다. 당연히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환영 받을만한 잡지였으나 그 내용이 기  
대와 달리 저조했으며 그 이유로 몇 번의  
경영 위기를 겪고 주인이 바뀌면서 지금  
까지 명성을 이어 오고 있는 잡지입니다.

지금 다시 포토넷에 대한 평가를 한다  
면 디지털전문 잡지라고 할까요? 그러나  
세상의 환경은 모두 바뀌어서 모든 매체  
가 디지털로 전환된 시점에서 디지털 전  
문이라는 수식어가 왠지 낯설다는 역설  
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 〈외국잡지〉



사진을 하다 보면 외국잡지들도 쉽게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친근한  
것을 꼽으라면 '내쇼날지오그래픽'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오랜 세월 우리 곁  
에 있으며 경이적인 사진들을 많이 보여  
주었던 잡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  
의 테마에 10여 장 내 외의 사진이 실리  
지만 그 10여 장을 위해서 평균 200여  
통의 필름을 소비하고 하늘과 땅 그리고  
오지도 마다하지 않은 정열의 사진작가  
들을 경이롭게 보던 잡지가 아니었나 생  
각합니다.

'B&W'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흑백  
전문 잡지입니다. 흑백전문 잡지가 저렇  
게 오래 명맥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며 그 내용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다양한, 또는 파격적인 작품을 들  
을 보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잡지가 아닐까 생각 합니다. 년  
2회 발행되는 특별판은 꼭 구입해 보시  
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종고라도 말입  
니다.

'Outdoor photographe' r는 풍경에 관한  
전문 잡지입니다.

풍경촬영을 위한 장비 소개에서부터  
멋진 풍경을 담기 위한 테크닉 그리고 멋  
진 작품들이 실려 있는 잡지 입니다. 몇  
권 되지 않는 우리의 잡지 시장과 비교해  
보면 장르별 잡지가 발행된다는 것에 놀  
라울 따름입니다.

외국서적도 구매 대행을 해주는 사이  
트가 많이 있습니다. 즉 손쉽게 구입이 가  
능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서적  
을 보시고 견문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잡  
지의 경우 1년 정기 구독이 20만원이 안  
됩니다. 즉, 카메라 가방 하나 값도 안 된  
다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자신에게 맞  
는 사진 전문 잡지 하나쯤 정기 구독 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권영식  
(edstudio@edstudio.  
co.kr)

스튜디오 포토매직 대표 역임  
노필름 대표  
이동스튜디오 대표  
13~19회 서울국제촬영제마라톤대회 공식 촬영  
www.EDstudio.co.kr



칼럼

조윤경 (장애인 푸른 아우성 대표)

# “성은 누리는 걸까, 채우는 걸까?”

## (여성장애인 출산 특별지원의 필요성)

### 성(sex)

같은 종의 생물에 암수의 구별이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해 유성생식(有性生殖)이 이루어진다. 고등한 생물일수록 암수의 형태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성이형(性二型)을 보여주는데 그 특징을 성징(性徵)이라 부른다. 단세포생물에서도 세포체 또는 핵질이 융합하여 생식이 일어나는데 이도 성발현 현상에 기인된다. 일반적으로 암수는 성염색체의 행동에 의하여 수정 때에 정해지며, 정자가 2종류이고 난자가 1종류인 경우 XO형과 XY형, 정자가 1종류이고 난자가 2종류의 경우 ZO형과 ZW형이 된다.

### 성(gender)

남성 · 여성 · 중성 등의 개념을 나타내는 문법범주(文法範疇). 사회에서 정의 내리는 성역할.

출처 ©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삶을 경험해보고 사는 사람은 없다. 삶

에 있어서는 누구나 초보이다. 1번이라도 살아보고 나서 실패나 실수나 두려운 일들을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삶은 1번 뿐이다. 그래서 누구나 미숙하다.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현명한 선택인지 모를 때 선배에게 묻기도 하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기도 한다.

각자가 행복한 성을 누리기 위한 방법들은 다양하지만 모든 인생사가 그렇듯이 성에도 정답은 없지만 유난히 성문제는 배우려고 하지도, 조언을 얻는 것도 꺼려한다. 오히려 창피하게 생각한다. 성이 야말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게 나누고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인데 말이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는 성별, 살아가면서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는 성역할, 성관계를 하고 싶은 성본능 등 굳이 어렵게 공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부분도 있기는 하다. 사춘기 즈음에는 몸의 변화와 함께 성본능도 같이 성장한다. 강한 호기심과 겉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진다. 자극적이고 쉽게

볼 수 있는 포르노를 보기도 하고 친구들과 과 잡지를 돌려보기도 한다. 남성들은 성매매를 통해 성욕구를 채우기도 한다.

그리고 성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육체적 성에 거부감이 있어서 모든 성적관계를 꺼려하기도 한다. 때로는 성폭력으로 자신만의 욕구를 만족시키기도 한다. 평생 여러사람과 관계를 하기도 하고 한 번도 하지 않기도 한다. 이처럼 종교, 나라, 연령, 성별마다 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 성을 누리고, 인식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다.

또 만남의 기회가 적고 조건이 열악한 장애인들은 성에 대해 시아가 좁다. 그리고 너무 쉽거나 어렵게 극단적으로 생각한다. 성과 사람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하다. 아예 성욕을 억제해 버리기도 한다.

사람을 만지고, 관계하고, 성욕을 채우고 싶은 마음과 이것들을 이루기 어려운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한다.

그러나 장애인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갈구하는 만큼의 노력은 하지 않는다.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게 되면 욕망에게 끌려 다니게 된다. 상대와 나의 관계보다, 행복보다 성욕을 채우는 일에만 집착한다. 한순간의 성적 쾌락 정도는 쉽게 채울 수도 있겠지만 상대와 나, 육체와 정신을 만족스럽게 채워주는 성은 스스로 만들어가려는 깊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나의 성을 내가 잘 알고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 그 속에서 장애인의 성도 건강하고堂堂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성욕을 채우기는 쉽지만 성을 누리는 어렵다.



장애인 푸른 아우성  
조윤경 대표

2000/10-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출연  
2000/1~2002.1 : 뇌성마비 모임 '어우러기' 회장  
2001/12- : '인간극장' 출연  
2002/4- : KBS '아침마당' 출연  
2002/5~ : 장애인 정보광장 '동인' 회장  
2003/3~2003.10 :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프랜드 케어' 소장역임  
2004 : 서울 디지털 대학 상담심리학부 재학  
2005 : 에이블 뉴스 조윤경 성 칼럼 연재  
2008~ : '새보람' 조윤경 칼럼 연재  
현 도봉푸른장애인독립생활센터 대표

## 독자투고

김진환(지체1급,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

저는 어릴 때의 사고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지체 1급의 장애를 가진 23살의 김진환(金鎭煥)입니다.

복지관으로 오기 전까지 저는 바깥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뻘뻘어지게 보였으며 그로인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을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 환한 웃음으로 내 겉으로 다가와 함께 웃어주는 사람들로 인해 제 마음도 어느덧 서서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배우게 된 계기는 복지관의 한 선생님의 권유였습니다. 어느 날, 체력단련을 하고 있는 저에게 컴퓨터를 배울 것을 권유하셨고, 저 또한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 결정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작년(2009년)부터 컴퓨터의 기초상식과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엑셀과 파워포인트 같은 오피스과목에도 도전하며 컴퓨터에 대한 호기심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해마다 장애인의 대상으로 하는 '경상남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선수는 '전국대회'를 나갈 수 있고, 특히 전국대회에서



##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금상을 수상한 사람들 중에 뛰어난 선수는 국가를 대표해서 '세계기능경기대회'를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도 지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6월 한국폴리텍항공대학과 연계하여 PC수리와 웹마스터교육이 받게되었고, 저 또한 쉽게 접할 수 없는 강의라 열심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PC수리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엔 힘들었고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전혀 알 수도 없었고, 어떤 키를 누르라는 건지 몰랐지만 교수님의 섬세한 설명은 저를 이

해시키기에 충분 하였고, 프로그램을 웃으며 설치하는 나 자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배움에 대한 재미와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는 저에게 열정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목표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부터 기능경기대회 'PC 수리부문'을 겨냥하고 교육을 충실히 받아온 저는 '경상남도 지역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찾아 온 '경상남도 지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시험장의 분위기는 엄숙했지만 심사를 하시는 교수님은 인

자했습니다. 작년에 입상을 한 선수들이 모두 출전했고, 심지어 10년 전부터 나온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종목에 참가한 12명이 선수들 중 제가 가장 나이가 어린 것 같아 무척 긴장됐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시험에 집중했습니다.

주관식문제는 어려웠지만 다행히 객관식은 다 아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저는 객관식 이후 치러진 실기에서도 기계와 멋진 한판승부를 벌이고 '2010년 기능경기대회 도전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비록 입상 아니었지만 좋은 사람들은 만났고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끈기를 배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당시 제 옆에서 열심히 작업에 매진하던 한 형님이 모습이 문득 떠오릅니다. 저는 손으로 드라이버를 돌릴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 형님은 뇌성마비라 휘어진 손으로 드라이버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은 초조함이나 메달에 대한 욕심보다는 그냥 대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가슴깊이 새기며 앞으로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 도전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그때의 형님 같은 마음으로 도전할 내년 5월을 설레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 ‘후원’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 부자보다 행복한 사람이 기부 많이 해 전 세계 3명 중 1명이 기부...호주, 뉴질랜드 최상위

관련기사 돈이 많은 나라보다 행복도가 높은 나라의 국민들이 더 많은 기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인구 3명 중 1명이 기부를 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은 낮은 사람을 도운 적이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이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국제 기부단체인 영국 자선원조재단(CAF, Charities Aid Foundation)이 껀럽에 의뢰해 지난 달 세계 153개국 19만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월드 기빙 인덱스’를 인용, 8월 이 같이 보도했다. 기부를 한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3명 중 1명이 “있다”고 답했고, 5명 중 1명은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45%는 낮은 사람을 도운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국가별로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최상위에 올랐고, 캐나다 아일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이 10위 안에 포함됐다. 이들 국가들은 기부를 한 인구가 70%를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이한 점은 20위 안에 스리랑카 라오스 기니 가이아나 투르크메니스탄 등 개발도상국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 그러나 인도는 134위, 중국은 147위에 그치는 등 아시아권은 저조했다. 자원봉사를 했다는 중국인은 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순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특히 기부 비율을 각각 GDP(국내총생산), 행복도(웰빙지수)와 연관시켜 분석한 결과, 부자 국가보다는 행복도가 높은 국가의 기부비율이 높았다.

## 조지 소로스, 국제인권단체에 1억달러 기부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에 1억달러 기부한 조지 소로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가 중 한 명이자 기부가로 유명한 조지 소로스(80·사진)가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에 1억달러(1182억원)를 기부한다고 발표했다.

7일(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번 기부액은 비정부기구 활동의 재정지원에 적극적인 소로스의 역대 단일 기부금액 기록을 경신하는 것이자 HRW가 받은 기부금액으로도 최고액이다. 올해 단일 기부금액 규모로도

베일러 대학을 졸업한 익명의 인사가 모교에 기부한 2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다.

1억달러의 기부는 향후 10년 동안 단행될 예정이며, 휴먼라이츠워치가 국제적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신규사무소를 개설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달 여든살 생일을 맞은 소로스는 “이제 나이가 든 만큼 재산 대부분을 기부할 것이며, 이번 결정은 앞으로 계속할 기부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케네스 로스 휴먼라이츠워치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1억달러의 기부금을 받기로 했다”며 “휴먼라이츠워치의 메시지가 영향력이 있는 세계 각국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로스는 추가적인 기부를 단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소로스는 “추가적인 대규모 기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이 그 첫 번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선단체 소로스 오픈소사이어티파운데이션을 통해 현재까지 80억달러 이상을 기부해왔으며 올해 총 8억달러의 기부를 추가로 단행할 계획이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6개 시·도 협회와 232개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또한 이 나라 480만 장애인들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회 및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 선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 나눔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 ■회원구분

일반회원 (2천원/월)	일반회원2 (5천원/월)	일반회원3 (1만원/월)
특별회원1 (3만원/월)	특별회원2 (5만원/월)	특별회원3 (10만원/월)
단체회원 (연 20만원이상)	기금회원	물품회원

### ■후원금 납부방법

- 지로, 자동이체
- 후원계좌 : 국민 822-01-0136-451  
농협 033-01-174991

※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후원신청

- ① 전화신청 : ☎02)796-4280
- ② 홈페이지 신청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접속 - 나눔마당 - 후원신청

### ■2010년 8월 후원자 명단(가나다 순)

김경희, 김구환, 김유경, 김은경, 김정빈, 김진호, 김태우, 김행우, 김환경, 남용원, 남혁우, 민박상조희, 박종형, 서재훈, 선병욱, 손영주, 송현, 스포츠토모(주), 양순연, 유재복, 윤준오, 윤채환, 이강구, 이민수, 이상돈, 이윤상, 이은정, 이효민, 임채종, 정은연, 조점제, 주명희, 주승운, 주영래, 주영우, 최인준, 최제훈, 한용구, 허찬

(후원자님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480만 장애인들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자에게는 ‘월간 새보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응  
모  
요  
령

‘★’에 있는 말로 단어를 조합해 우편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 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답  
힌  
트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또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의자식의 탈것.

	★1				2	★
	3		4		5	6
		7			8	
	★9					



### 지난호 정답

*1 상	어			2 품		
룩		3 사	필	귀	4 정	
5 수	목	원			도	
				*6 수	전	7 증
				영		여
8 도		*9 안	용	복		세
10 망	원	경				

### 8월호 정답

안상수

라체홍 대구 서구 비산동  
박명주 경북 포항시 남구 이동  
박현중 광주 서구 화정동

### 당첨자

### | 가로열쇠 |

- 진주조개 · 대합 · 전복 따위의 조가비나 살 속에 생기는 딱딱한 덩어리. 조개의 체내에 침입한 모래알 따위의 이물(異物)이 조가비를 만드는 외투막(外套膜)을 자극하여 분비된 진주질이 모래알을 에워싸서 생긴다. 탄산칼슘이 주성분이며, 우아하고 아름다운 빛깔의 광택이 나서 장신구로 쓴다.
- 매우 기빠함. 또는 큰 기쁨.
-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세조에게 죽임을 당한 성삼문, 하위지, 이개, 유성원, 박팽년, 유응부 이상 여섯 명의 신하를 이르는 말.
-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쳐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
-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봄.
- 지열에 의하여 지하수가 그 지역의 평균 기온 이상으로 데워져 솟아 나오는 샘. 온천의 온도 한계는 일정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러 가지 광물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의료에 효과가 있다.
- 자기의 생활이나 체험을 직접 쓴 기록.

### | 세로열쇠 |

- 〇〇〇待天命.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나서 천명을 기다린다.
-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약. 엘에스디(LSD), 대마초 따위가 있다.
- 역사가 · 언론인 · 독립운동가 · 문인. 본관은 고령(高靈)이며, 호는 단재(丹齋)이다. 구한 말부터 언론 계몽운동을 하다 망명,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였으나 견해차이로 임정을 탈퇴, 국민대표자회의 소집과 무정부주의 단체에 가담하여 활동했으며 사서 연구에 몰두하기도 했다.
- 중국 전한(前漢)의 역사가(?~B.C.145~?~B.C.86). 자는 자장(子長). 기원전 104년에 공손경(公孫卿)과 함께 태초력(太初曆)을 제정하여 후세 역법의 기초를 세웠으며, 역사책 《사기》를 완성하였다.
- 물건을 싸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네모지게 만든 작은 천.
- 고구려 평원왕 때의 장군(?~590). 어려서 바보라는 말을 들었으나, 평강 공주와 혼인하여 무예를 닦고 무장이 되었다. 590년에 한북(漢北)의 땅을 찾고자 출전하였다가 전사하였다.

### 틀린크림찾기 DIFFERENT SEARCH



두 사진에는 3곳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매달 정답자 세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연공방의 '천연비누'

###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품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로부터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념품, 답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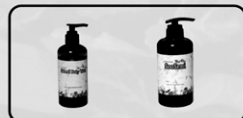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물렌징



천연바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www.gabrielcenter.or.kr

응모요령 : 2장의 사진 중 아래의 사진에 틀린 부분을 표시하고(2개 이상) 절취한 후,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타 장애인 콘테스트



장애를 주제로 다양한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적인 예술적 소질의 개발과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로 이끌기 위한 **스타장애 예술인 콘테스트!**  
끼와 열정을 가진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장 소 **서울시청열린광장**  
경연대회 **2010.9.17 금 15PM~17PM**  
시 상 식 **2010.9.17 금 17PM**  
경연부문 **음악 노래.악기 | 댄스 | 개인장기**

참가자격 | 장애인복지법상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연령 제한이 없음. 장애인이 포함된 팀으로도 참가 가능  
공모목적 | 전국에 활동하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예술가들이 장애를 주제로 다양한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발표의 기회 제공  
응모자격 |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모든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원자  
응모분야 | UCC 음악 노래.악기 | 댄스 | 개인장기 3분~5분 이내 | avi. mpeg. wmv. swf 파일 | 100MB 이하로 제작  
공모기간 |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 8월 30일 월요일 오후 5시 까지  
시상내역 | 대상 1명 Team | 금상 1명 Team | 은상 2명 Team | 동상 3명 Team | 장려상 4명 Team  
예선심사 | 2010년 9월 3일 금요일  
예선심사결과발표 | 2010년 9월 3일 금요일  
본 선 | 2010년 9월 17일 금요일  
문 의 | 스타 장애 예술인 콘테스트 담당 T. 02-2289-4332

주최 | **한국ppi**  
주관 | 2010 장애인문화예술국민대축제조직위원회 **대한장애인협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협찬 | **POSCO**

2010 장애인문화예술국민대축제 조직위원회  
130-864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5 대산빌딩 3층  
Tel. 02. 969. 0419 / 0420 Fax. 02. 969. 0426 [www.dpifestival.org](http://www.dpifestival.org)